

어달의 시점	● 엔高의 실상 / 박우희	2
경제전망대	● 超엔高로 경기 상승세 가속화	4
경제 현안	● 세계화 시대의 재정 정책과 조세 개혁 / 안종범 ● 교육 개혁과 경제 / 이주호	9 16
산업 분석	● 수출 제조 기업의 수출 성과 요인에 대한 평가와 과제 / 박상기 ● 한국 관광 산업의 전망 / 임은순 ● 초고속 정보 통신망의 구축과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 / 김창욱	60 66 75
신경영 전략	● 금융 시장의 위험 증가와 기업의 위험 관리 / 최도성 ● 활동 중심 회계(ABC)와 활용 방안 / 안태식 ●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경영 전략의 핵심인가? / 한동철 ● 선진 기업의 경영 전략(II)-ABB(ASEA BROWN BOVERI)社 "Think Global, Act Local" / 박진영	82 90 97 102
해외 경제	● 중국의 WTO 가입과 시사점 / 김정균 ● 국제 외환 시장 불안에 따른 국제통화제도의 개편 논의 / 전상준 · 최광석	104 110
증시 코너	● 내부 여건 호전에 따른 회복세 예상 / 천일영	116
신간 안내	● 4월중 연구 보고서 및 신간 안내	118
주요경제지표		120

**기  
획  
특  
집**

**주제: 지방경제 시대의 출범과 향후 과제**

- 지방경제 시대의 출범과 향후 과제(총론) / 김인제 24
- 지방경제의 불균형 현황과 해소 방안 / 신광철 30
- 강원 지역의 경제 현황과 향후 과제 / 김인준 38
- 광주·전남북 지역의 경제 현황과 향후 과제 / 박용선 42
- 대전·충남북 지역의 경제 현황과 향후 과제 / 김인준 48
- 부산·경남, 대구·경북 지역의 경제 현황과 향후 과제 / 이준호 53

**현경갤러리**

說(Legend) / 김진관

**22 문화의 산책**

1백 년에 걸친 야마하 피아노의 슈타인웨이에 대한 도전과 부분적 승리

/ 김일모

**59 고전명화의 감상 / 이영재**

**119 건강상식**

저혈압은 위험한가 / 조홍준

## 엔高의 실상

박우희 / 서울대학교 교수, 경제학

지금 일본 엔화는 1:80을 넘어 75까지, 아니 50까지라도 떨어질 것(엔 가치로는 올라갈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슈퍼 엔고의 원인은 기본적으로는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일본의 대폭적인 경상 수지 흑자와 미국의 무역과 재정적 쌍둥이 적자에 기인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국제 외환 시장에서의 헤지 펀드가 주범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하에선 美, 日, 獨의 이자율 조작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작년 여름 일본 經團連의 도요다 쇼이찌로 회장과 동아일보 기사를 위한 인터뷰 때 필자는 앞으로 언제쯤 1:1이 될 것인지 물어본 적이 있다. 73년에 360 엔이던 것이 지금은 80 엔인데 280 엔이 22 년만에 떨어졌으니 연평균 13 엔 정도 하락한 셈이고 이런 추세로 가면 앞으로 6년 내에 1:1이 되기 때문이다. 그때는 물론 농담으로 흘리고 말았으나 지금으로선 꽤 현실적이다.

그런데 실은 360 엔에서 300, 거기서 250, 150, 금년 들어 100이 깨어질 때 일본은 언제나

정부, 기업, 국민할 것 없이 공황이니, 불경기니, 위기니 하며 한 목소리로 상상치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같이 엄살을 부리기 일쑤였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수출은 늘며,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는 사상 최대로 늘어만 가고, 엔고의 충격을 곧 흡수하여 성장, 물가, 수지의 세 마리 토끼를 잡는 등 잘 발전되고 있음은 사실 놀랄 만 하며, 이것이 일본 경제의 실상임을 잊어서는 안될 줄 생각된다.

78년에 1:175, 88년에 120, 95년에 80인데 그 당시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는 각각 151억 달러(인플레 7.6%), 1,670억 달러(미국 주식 폭락), 1,450억 달러(멕시코의 통화 위기)였음을 알고 보면 지금의 80에서 앞으로 50을 넘어서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미국은 지금도 거의 위기감이 없고 일본도 겉으로만 엄살이지 실은 차분하며 언제나 고요하게 잘 마무리해 나가고 있음을 보면, 결국 1:1이 될 때까지 미국과 일본의 겉으로 보는 경제 상황은 그대로 이어질 것이 틀림없을 것으

로 보여진다.

얼마전 일본 통산성 주최의 국제 회의에 다녀오면서도 똑같은 느낌이었다. 일본은 그때도 엔고가 연일 계속되는 것을 예상했던 일이라 하면서 오히려 생산비 하락에 치중하고, 남이 갖지 않는 생산 시설, 부품, 소재를 개발하며, 엔고가 되는데도 오히려 무역 수지가 나아지는 기막힌 경제 구조와 체질을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사실 엔고가 되면 일본의 한계 수출 기업만 얼마쯤 넘어지거나 이들이 동남아, 중국 등으로 생산 기지를 옮길 뿐 오히려 엔고로 인해 수입 가격은 떨어지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자산 특히 은행의 자산 가액이 그만큼 올라가면서 결국 일본 경제가 전체적으로 국부 확대라는 한 방향으로 치닫기만 하고 있다. 일본은 겉으로 엄살과 아우성을 표시하지만 내심은 반가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지금 쌓이고 있는 국제 수지 흑자를 줄여야만 모든 문제를 치료하는 근본 대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 느긋하며 미국이 엔고를 부추기고 있다고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의 달러 정책은 실패작이 틀림없다. 당장의 어려움을 넘기기 위해 나중에 큰 화를 자초하는 小貧大失의 바보스러운 짓이라고도 볼 수 있다. 생산보다 소비를 우선하는 미국이 국제 수지 악화나 재정 수지 악화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저달러 정책을 쓰면 쓸수록 당장 효과는 얼마만큼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경제력이 일본에 비해 급속히 떨어지는

어리석은 결과가 앞으로 얼마 안가 눈에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 이제 개인당 소득은 이미 미국이 일본에 뒤떨어졌고 인구는 배, 땅 면적은 수십 배인데도 GNP는 앞으로 얼마 안가 일본에 뒤떨어질 날이 멀지 않았고, 이것이 엔고가 되면 될수록 가속화되어 미국이 일본보다 경제의 절대 규모에서 뒤떨어지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50년전 2차대전에서 막대한 경제력으로 일본을 이겼던 미국이 이제는 드디어 일본에게 경제적으로 뒤지는 상황이 되고 말 것같은 생각이 든다.

엔고가 되면 될수록 일본 은행은 세계 20대 은행을 석권하게 되며, 일본의 첨단 기술 산업은 절대 우위를 가지게 되고, 특히 세계 100대 기업중 1960년에 미국이 69, 일본이 3이었던 것이 1993년에는 32 대 23이 되었고 이것이 만일 엔고가 1:60 이하로 더 떨어지면 곧 역전되는 상황으로 급변할 것이다.

엔고는 미국에서 수출 증대, 무역 적자 축소, 일본이 수출 감소, 무역 수지 흑자 감소로 이어져야만 되는데, 그 고비를 일본이 잘 넘기고 있는 한 일본으로선 이제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이점에 유의하여 이제 화폐만을 만지작거리는 정책에서 벗어나 더 근본적인 생산 및 경쟁력 강화 정책에 치중할 때라 생각된다. 단기 정책은 이제 약효가 떨어졌으니 고통을 참으면서 소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제고하고 근본 절약하는 근본적인 장기 대책을 서두를 때가 왔다고 본다. 이점이 현 엔고의 시작이며 결말이다.♣